

기획특집 | Special Reports

브라질월드컵과 우리 대표팀의 도전

홍유표

1. 프롤로그 - 월드컵 축구 예찬

축구는 전투의 용맹함과 체스의 지혜,
발레의 우아함을 갖고 있다.
야구, 농구가 록큰롤과 재즈라면 축구는 클래식에 비유된다.
축구는 움직이는 예술로 승화되고 있다.
펠레의 화려함과 지단의 우아함, 마라도나의 유연함과
호나우두, 메시, 네이마르의 환상적인 드리블은
그 자체로써 움직이는 예술이다.
그들은 그라운드의 영웅이자 황제, 신으로까지 불려진다.
사람들은 원시적 전쟁의 영웅을 녹색 필드에서 갈망하고 있다.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초여름의 뜨거운 축제!
월드컵은 언어와 국경, 인종과 종교, 이념과 세대를 초월해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
지구촌의 세 사람 가운데 한사람은 지독한 월드컵의 열병을 앓는다.

2. 1950년 7월, 마라카낭의 추억

1950년 7월 16일, 20만 관중이 운집한 리우 데 자네이루 마라카낭 경



FIFA WORLD CUP

Brasil

브라질월드컵 로고

기장. 브라질과 우루과이가 줄리메컵을 놓고 결승에서 만났다. 결승리그 전적 2승의 브라질은, 1승1무의 우루과이와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차지한다. 모든 사람들은 브라질의 우승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줄리메 FIFA회장의 호주머니에는 브라질의 우승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전

반 내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브라질은 후반 시작 5분 만에 프리아사가 선취골을 터뜨린다. 마라카낭은 광란의 환호와 함성으로 뒤덮인다. 반격에 나선 우루과이는 28분 치아피노의 동점골에 이어 34분 히히아가 역전 결승골을 뽑아낸다. 히히아의 골이 들어가자 마라카낭은 물론 브라질 전 역이 일순간 깊은 침묵의 늪에 빠져들었다. 브라질의 필사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2대1, 우루과이의 승리로 끝이 났다. 스탠드에는 실신하는 관중이 속출하고 울부짖던 팬들은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이 경기를 생중계하던 아리 바로소는 이 경기를 끝으로 영원히 축구경기를 중계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브라질 언론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패배’라고 탄식했다.

집집마다 조기가 걸렸고 라디오 뉴스는 매시간 권총 자살 소식을 전했다. 우루과이 선수들은 우승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경기장을 빠져나와 도망치듯 리우를 빠져나갔다. 1950년 제4회 브라질월드컵은 이처럼 리우데 자네이루를 비탄과 죽음의 도시로 만든 대회로 추억되고 있다.

3. 월드컵, 64년 만의 귀향

현대 축구는 잉글랜드에서 출발했지만 ‘축구의 나라는 브라질’이란 걸 부정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삼바와 정열의 나라 브라질, 축구를 문화상품으로 수출하는 브라질에서 축구는 굴뚝 없는 거대 산업이다. 한 해 천여 명의 축구선수들을 전 세계 각국에 내보내 이적료와 연봉 등으로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지난해 산투스FC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FC로 이적한 네이마르의 경우 이적료만 8,620만 유로(한화 약 1,2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K리그에도 현재 27명의 브라질 선수들이 뛰고 있다. 2000년대 전후 우리 축구계에서도 브라질 축구 유학이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다. 국가대표 박주영을 비롯해 백지훈, 오범석 등 전·

GROUP A	GROUP B	GROUP C	GROUP D
Brazil	Spain	Colombia	Uruguay
Croatia	Netherlands	Greece	Costa Rica
Mexico	Chile	Côte d'Ivoire	England
Cameroon	Australia	Japan	Italy
GROUP E	GROUP F	GROUP G	GROUP H
Switzerland	Argentina	Germany	Belgium
Ecuador	Bosnia-Herzegovina	Portugal	Algeria
France	Iran	Ghana	Russia
Honduras	Nigeria	USA	Korea Republic

2014 브라질 월드컵 조편성

현 국가대표들이 브라질 유학과 출신이다. 말은 제주로, 축구 선수는 브라질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축구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브라질, 월드컵 최다우승국(5차례) 브라질에서 축구는 삶의 전부이자 신앙이 아닌가 싶다.

몇 개월 후면 지상 최대의 지구촌 축제, 월드컵 축구가 64년 만에 다시 축구의 나라 브라질(2014년 6월13일~7월14일)에서 열린다. 1950년에는 13개국만이 참가했지만 이번에는 32개국이 출전한다. 월드컵 무대의 영원한 우승후보 브라질이 1950년 결승전의 상처를 딛고 2002년 한일월드컵 우승 이후 12년 만에, 통산 6번째 정상에 오를 수 있을는지, 관전 포인트를 살펴본다.

1) 개최 대륙에서 우승국 나오는 전통은 계속될까?

이번 대회는 개최국으로 자동 출전하는 브라질과 대륙별 지역 예선을 통과한 31개국 등 모두 32개국이 네 팀씩 8개조로 나뉘어 조별 예선리그를 벌인 뒤 각조 상위 2팀이 16강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국을 가린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월드컵은 2002년 한일월드컵 이전까지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번갈아 열려왔다. 그리고 월드컵의 주인공은 1958년 스

웨덴 대회(브라질이 우승), 단 한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개최대륙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브라질월드컵 우승 후보로 개최국 브라질과 FIFA랭킹 1위 스페인, 전차군단 독일, 남미의 아르헨티나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유럽 팀이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이 없는 한 이번 대회 우승국은 남미 팀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홈팀 브라질, 컨페더레이션컵 우승국의 징크스 켤까?

월드컵 리허설 무대인 2013년 브라질 컨페더레이션스컵 결승에서 홈팀 브라질이 29경기 무패를 달리던 무적함대 스페인을 3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유럽 팀보다 남미 전통의 강호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먼저 꼽고 싶다. 우승 후보 0순위는 물론 홈팀인 브라질이다. 명장 스콜라리 감독이 이끄는 브라질은 새별 네이마르를 비롯한 헐크, 오스카, 다비드 등 기라성 같은 스쿼드를 중심으로 우승후보국임을 이미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입증해 보였다. 최고의 실력에, 개최대륙의 개최국이라는 이점까지 안고 있는 브라질이 통산 6번째 우승에 가장 근접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듯하다. 다만 브라질로서는 컨페더레이션컵 우승팀이 다음 해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다는 징크스를 깨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만에 하나 브라질이 1950년 대회 같은 대이변의 희생양이 된다면 그 다음엔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 2011년 코파아메리카 챔피언인 우루과이가 남미의 자존심을 걸고 정상을 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의 월드컵 16강 - 첫 상대 러시아전에 달렸다



The image shows a graphic titled "2014 브라질 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일정" (2014 Brazil World Cup Korea Republic Match Schedule). It lists three matches for the Republic of Korea, each with the opponent's flag, the match date and time, and the venue.

대한민국 vs 러시아
6월 18일 (수) 07시 쿠이아바

대한민국 vs 알제리
6월 23일 (월) 01시 포르투 알레그리

대한민국 vs 벨기에
6월 27일 (금) 05시 상파울루

브라질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일정
(이미지 출처: <http://www.sbs.co.kr>)

8회 연속, 통산 9번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한국은 오는 6월 18일 러시아와 첫 경기를 갖고 23일 알제리, 27일 벨기에와 차례로 맞붙는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에 올랐던 한국은 2회 연속 16강에 도전장을 냈다.

1) 속으로 미소 지은 H조 4팀

지난해 12월 브라질월드컵 본선 조 추첨 결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H조 네 팀은 대체로 무난한 조 편성이라고 은근히 만족감을 드러냈다. 다른 조에 비해서 절대 강팀들을 피했기 때문이다. 개최국 브라질과 세계랭킹 1위 스페인, 전통의 강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과의 조별 리그 대결을 피한 것은 네 팀 모두에게 다행스런 일이었다. 따라서 한국이 속한 H조에서는 절대 강자도, 약자도 없는 혼전이 예상되고 있다.

2) 최소 승점 4점은 확보해야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승점 4점, 1승1무1패의 성적을 올

려야 한다. 물론 물고 물릴 경우 2승1패 승점 6점으로도 탈락하는 수도 있고 1승2패, 승점 3점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H조 4팀의 객관적 전력을 비교해보면 FIFA랭킹 11위의 벨기에, 22위의 러시아가 알제리(26위), 한국(54위) 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한국은 4년 전에도 우리보다 랭킹이 높은 그리스,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16강에 오른 바 있다. 따라서 FIFA랭킹은 큰 의미가 없다.

3) 알제리를 잡아라

한국이 16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알제리를 무조건 잡아야만 한다. 한국은 85년 12월 멕시코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알제리와의 평가전에서 당시 김종부, 최순호의 연속골로 2대0으로 이긴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한국은 특히 아프리카 팀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알제리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1승 상대다.

4) 러시아와의 첫 판이 16강 분수령

한국이 알제리를 이긴다고 가정 할 경우 러시아와의 첫 경기에서 최소한 비기거나 이겨야 16강을 바라 볼 수 있다. 만일 러시아에 진다면 16강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지난 해 평가전에서 한국이 러시아에 1대2로 역전패 했지만 이기지 못할 상대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5) 벨기에와는 최대한 비겨야

벨기에는 유럽예선에서 무패의 전적으로 본선에 오른 데다 톱시드를 배정받았을 만큼 이번 대회에 다크호스로 꼽힌다. 따라서 한국 팀으로서 는 버거운 상대로 보인다. 역대전적에서 1무1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비기기도 쉽지 않을 듯하다. 벨기에에 지더라도 조2위 경쟁에 대비해 실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이 러시아, 벨기에와 비기고 알제리를 꺾는다면 1승2무승부, 승점 5점으로 16강이 유력해지지만 3팀이 같은 승점 5점이

될 것에 대비해 알제리에 많은 점수 차로 이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에필로그 - 공은 둥글다?

84년 월드컵의 역사는 종종 이변과 파란이 있었기에 흥미를 더했다. 그렇기에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 고도 하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라고 한다. 강한 팀이 예상대로 모두 승리한다면 스포츠가 과연 흥미가 있을까? 스포츠의 매력은 극적인 반전이 있기에 더욱 짜릿함을 안겨준다.

어떤 이는 ‘축구는 스포츠 이상이다’ (Football is more than a sports)라고 했다. 축구는 89분 밀리더라도 마지막 남은 1분에 골을 넣으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그만큼 예외와 이변이 많은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1950년 브라질월드컵에서 축구변방 미국이 종주국 잉글랜드를 1대0으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당시 영국 언론들은 거꾸로 ‘잉글랜드가 미국을 1대0으로 이겼다’고 오보를 내기도 했다. 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는 북한이 이탈리아를 1대0으로 이겨 8강 진출의 기적을 낳았고 1982년 스페인월드컵에서는 알제리가 당시 서독을 2대1로 격파하는 대이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잇달아 물리치고 4강 신화를 썼다.

흔히들 말한다. ‘축구공은 둥글다’고. 대한민국이 오는 6월 브라질에서 다시 한 번 초여름 밤의 대서사시를 썼으면 좋겠다.

홍유표 - 한국프로축구연맹 전문위원, 전 KBS국장/해설위원